

【特集】

日本韓国語教育学会 創立10周年記念  
국제심포지엄 “한국어 교육의 현재와 미래”  
国際シンポジウム「韓国語教育の現況と今後の展望」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재영 회장(한국 한신대학교)  
중국조선어교육학회 강보유 회장(중국 복단대학)  
대만한국연구학회 진경지 이사장(대만 국립정치대학)  
본학회명예고문 최기호(몽골 국제울란바타르대학 총장)  
싱가포르국립대학 지서원 교수  
규슈산업대학 하세가와 유키코 교수

日本韓国語教育学会

2020年9月

日本韓国語教育学会 創立10周年記念  
국제심포지엄 “한국어 교육의 현재와 미래”  
国際シンポジウム「韓国語教育の現況と今後の展望」

사회 : 일본한국어교육학회 문경철 회장  
司会 : 日本韓国語教育学会 文慶喆 会長

---

【심포지스트】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재영 회장(한국 한신대학교)  
중국조선어교육학회 강보유 회장(중국 복단대학)  
대만한국연구학회 진경지 이사장(대만 국립정치대학)  
본학회명예고문 최기호(몽골 국제울란바타르대학 총장)  
싱가포르국립대학 지서원 교수  
규슈산업대학 하세가와 유키코 교수

---

【シンポジスト】

---

国際韓国語教育学会 韓在永 会長(韓国 韓神대학교)  
中国朝鮮語教育学会 姜宝有 会長(中国 復旦大学)  
台湾韓国研究学会 陳慶智 理事長(台湾 国立政治大学)  
本学会名誉顧問 崔起鎬(モンゴル国際ウランバートル大学総長)  
シンガポール国立大学 池緒媛 教授  
九州産業大学 長谷川由起子 教授

# 한국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의 현재와 미래

한 재영(한신대학교)

## 1. 한국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의 현황

최근 교육통계 자료인 ‘2018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수’ 현황에 따르면 학위과정으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86,036명으로 작년에 비해 14,000여 명 늘었고, 어학연수생이나 교환연수생 등 비학위과정 학생들은 56,169명으로 작년에 비해 5,000여 명, 재작년에 비해 15,000여 명이 늘었다. 그만큼 한국어교육의 양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수가 2015년 20만 명 정도에서 2018년 33만여 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데에 따라 한국어교육 국내 현황은 분야별로 다양한 변화들이 있어 왔다. 여기서는 한국어교육의 외적 차원에서 교육 정책과 기관과 현황에 대해서 다루고 내적 차원에서는 학습자와 교재, 교원 그리고 평가 영역의 현황을 살펴, 앞으로 해야 할 일의 내용과 가야할 길의 방향을 찾아보기로 한다.

## 2. 한국어교육의 외적 변화

### 2.1 한국어교육 관련 정책의 변화

#### 2.1.1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정희원(2017)에 따르면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이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된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는 한국어 교원의 자격 부여에 필요한 경력과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 등을 명시하고 있다. 2016년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실태조사’, 2017년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 타당성 검증’ 연구를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 중에 있다. 시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개선 방안으로는 서류 중심의 교과목 심사 방식에서 기관의 교육 내용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정제 시행을 검토 중이며,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인증 타당성 점검 연구’를 진행하고 법 시행령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이다.

## 2.1.2 다문화사회의 한국어교육 정책

### 1) 사회통합프로그램

2018년 12월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약 236만 명으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체류외국인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은 국내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마련한 교육이다. 민진영·박소영(2019)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안희은(2019)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도구인 한국어교육 정책의 문제점들을 살피고 올바른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강수정(2019)에서도 다문화교육 관점과 같은 이론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목표원리를 구축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2.1.3 한국어교육 정책 전반

조현용(2018)에서는 먼저 한국어교육 정책에서의 가장 큰 문제로 담당하는 부서가 매우 많다는 것을 지적한다. 교육부에서도 여러 부서가 있으며 문화부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에도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부서가 있다. 다음으로는 유학생 유치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낮아 학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학교별, 학과별 등급 차별화 및 학문 목적 한국어시험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한국어 교원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직업의 안정성, 교육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 2.2 한국어교육 기관 현황

국립국어원에서는 2017년 한국어교육 실습 기관 기초조사를 진행하였고, 결과보고서(이정란 외, 2017)를 통해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 현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표 1.

항목	대학 부설 기관	KSL 기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sup>36)</sup>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기관 수	220개	500개	218개	301개	63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41개 (18.6%)</li> <li>• 경기 40개 (18.1%)</li> <li>• 경북/충남 각 21개(9.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85개 (17%)</li> <li>• 경기 68개 (13.6%)</li> <li>• 서울 38개 (7.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30개 (13.8%)</li> <li>• 서울 24개 (11%)</li> <li>• 경북 23개 (10.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72개 (23.9%)</li> <li>• 충북 31개 (10.3%)</li> <li>• 충남 25개 (8.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19개 (30.2%)</li> <li>• 서울 9개 (14.3%)</li> <li>• 경남 6개 (9.5%)</li> </ul>

### 3. 한국어교육의 내적 변화

#### 3.1 학습자 대상별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현황

##### 1) 학문목적 한국어교육

국내 한국어교육의 변화는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자비 유학생의 증가로 시작되었던 학문목적 학습자 유입과 이후 교육부에서 수립한 Study Korea Project(05~12) 정책으로 이루어진 학문목적 학습자의 대량 유입이 선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지영(2018)의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주제로 한 학술지 연구 논문 339편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교육 내용, 교육 자료, 현황, 교육 대상, 평가에 대한 연구보다는 교육 방법과 장르 분석, 텍스트 분석, 텍스트 특징 비교 혹은 대조와 같은 교육 정보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 2) 결혼이민자대상 한국어교육

김선정(2018)에서는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으로 결혼이민자 맞춤형 특수 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로 나누어 제안하고 있다. 1단계와 3단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만 운영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사회통합기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각각 운영하는 단계이다. 3단계에서는 국적 취득을 준비하는 결혼이민자이든, 이미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이든에 관계없이 고급 한국어를 학습하는 단계이다.

##### 3)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

중도입국청소년 한국어교육 지원 현황과 그에 대한 제도적 측면의 발전적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중복 사업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중도입국청소년의

요구를 분석하여 이들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사업이 개발되어야 하며, 모국어교육으로 이중 언어교육의 지원과 활용이 필요하고, 한국어 심화교육과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김소영·홍영균(2018)에서 논의되었다.

#### 4) 외국인노동자대상 한국어교육

전국의 외국인력지원센터 39곳의 현황과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해 살핀 박셋별(2018)에서는 교사 수가 매우 적은 편이고, 지역별 센터의 접근성을 볼 때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인천 등이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고,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시에는 센터가 없어서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3.2 한국어 교재 출판 현황

최근 5년 간 대학 교육기관에서 개발한 교재는 총 66종으로 전체 154종 중 약 42.8%를 차지하였고, 그중 49종(31.8%)은 일반 목적 학습자 대상, 17종(11%)은 학문 목적 학습자 대상의 교재이다. 최근에는 각 부처별로 분리되어 개발되던 교재를 국립국어원에서 종합 관리·개발하는 것으로 그 방향이 바뀌었다. 또한 대학 교육기관에서 여전히 교재를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 최근 개인 저자들의 교재 개발도 확대되는 현상이 있기도 하다. 교재 부분별로 보다 다양한 활동과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구 역시 적지 않다.

### 3.3 한국어교원 현황

교원자격증 발급의 실효성이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또한 한국어 교원의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 3.4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위한 제언

#### 3.4.1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관련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2012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개발 정책연구를 실시해왔고, 2018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및 모의시행을 실시하고 있다.

### 3.4.2 교수학습 방안 관련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과 관련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 찬규(2018)에서는 아래와 같은 한국어교육 전망을 예측하고 있으며, 점차 한국어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표 2.

	인공지능 통번역 수준	한국어교육 교수 주체	참고 사항
제1기	입문 수준의 통번역	한국어 학습 보조	
제2기 (2018년 현재)	1급 수준의 통번역	인간+인공지능(보조적)	인공지능 통번역 서비스, 인공지능스피커 등장
제3기(2023년 경)	2-3급 수준의 통번역	인간+인공지능(참여적)	학습자의 오류 수정 등에 적극 참여
제4기(2028년 경)	4-5급 수준의 통번역	인공지능(주도적) +인간(보조적)	
제5기(2033년 경)	6급 수준의 통번역	인공지능과 인간의 교수학습 영역 구분	통번역에서 인간은 미묘한 언어적 차이만을 담당하거나 문화 교육 등을 주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
제6기 (2038년 이후)	전문가 수준의 통번역	소수의 인간만이 전문적인 수준의 외국어 학습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문헌

- 강수정(2019),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현황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제언, 다문화와 평화제 13집 1호
- 김선정(2018),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제 14 권 4 호
- 김소영·홍영균(2018), 중도입국청소년 한국어교육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 레인보우스쿨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이동청소년연구 제 3 권 제 2 호
- 민진영·박소영(2019),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2018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 13 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 박삿별(2018),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 - 외국인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18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 13 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 안희은(2019), 한국어교육 정책의 발전방향 고찰,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5.
- 이보라미(2018),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 파견 정책의 현황과 전망,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7.
- 이정란 외(2017), 한국어교육 실습 기관 기초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 이지영(2018),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 분석, 인문사회 21 제 9 권 6 호
- 이찬규(2018), 인공지능 시대, 한국어 교육의 방향과 전망, 2018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 13 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 정희원(2017),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7.
- 조현용(2018),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 우리말연구 54.
- 한재영(2013), 한국어교육 연구의 현황 2013, 신구문화사.

#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재와 미래

姜 寶有(復旦大學)

## 1. 한국어교육의 어제와 오늘

7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을 단계별로 중한 수교 전과 수교 후로 크게 양분하기도 하지만 발전 단계 양상을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1) 첫 번째 단계: 한국어교육의 초창기 (1940년대 중반 - 1960년대 중반)  
이 시기 조선어학과를 개설한 대학은 북경대학교(1949년)와 대외경제무역대학교 (1952년) 그리고 낙양외국어학원(1956년)이다.
- 2) 두 번째 단계: 한국어교육의 침체기 (1960년대 중반 - 1970년대 말)  
문화대혁명 동란으로 학교 운영이 마비됨과 동시에 중국과 조선 간의 상호 교류가 뜸해지면서 북경대학교와 낙양외국어학원이 학생 모집을 중지했다. 중조 친선 관계가 호전되면서 1972년에 연변대학교와 북경제2외국어학원에서 조선어학과를 개설 하였지만 70년대 말에 와서는 이 두 대학의 조선어학과도 취소되거나 잠시 문을 닫았다.
- 3) 세 번째 단계: 한국어교육의 원상회복기 (1970년대 말 - 1992년 중·한 수교 전)  
문화대혁명의 결속과 함께 대학입시가 회복되면서 중국의 교육 환경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대중적인 한국어 학습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 4) 네 번째 단계: 한국어교육의 상승기 (1992년 중·한 수교 - 2000년)  
중한 수교를 거치면서 한국어 학습 열기는 또 한 번 뜨거워졌다. 회복단계를 벗어나 점차 활성화되고, 변화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어(한국어)학과가 수교 전의 5 개 대학으로부터 2000년에는 33 개 대학으로 증가하였다.



5) 다섯 번째 단계: 한국어교육의 전성기 (2001년 - 현재)

중한 양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가 심화, 발전, 확대됨에 따라 양적인 급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어학과 개설 대학이 1950년대의 3 개로부터 1970년대에는 5개로, 1990년대에는 20여 개로 증가하다가 2000년으로부터 2010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를 포함하여 280여 개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됨으로써 중국 내 대학 외국어학과 가운데서 학과 수와 학생모집 수가 영어학과와 일본어학과에 이어 3위권에 들어왔다. 한국어교육에 종사하는 교사 대오는 현재 1,200명 이상 규모로 늘어났으며 재학생수도 45,000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중국 내 대학의 한국어학과의 학제를 본다면, 3년제 전과와 4년제 본과(학사과정), 그리고 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및 박사 후 과정(포닥 po-doc)으로 나누어지는데, 모든 대학이 대학원 학위과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학 전공 박사학위 과정을 두고 있는 대학은 10개이고 박사 후 과정을 두고 있는 대학은 5개이다. 석사학위 과정을 두고 있는 대학은 30여 개이고 한중 번역석사과정(MTI)을 개설한 대학은 21개이다. 이로부터 30여 개 대학만이 학문 목적의 한국어교육을 하고 나머지 250개 대학은 취직 목적의 한국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새천년에 진입하면서 중국 내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래 몇 가지 환경 조건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첫째,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대거 진출로 하여 한국기업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많은 중국 사람들은 한류문화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한국과 한국문화를 알고자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뜨거워졌다.

둘째, 중한 수교 이후 중국에서는 한국어 붐이 크게 일면서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이 날로 높아졌다. 한국어는 현재 한국과 조선 그리고 해외 동포를 포함하여 사용자 수가 7,720만여 명으로 세계 13위를 차지하는 대국 언어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어는 또 인터넷 사용 인구에서 세계 10위에 속하며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어를 10대 실용 언어로 간주하고 있다.

셋째, 2000년대에 들어서 대학교 시스템 개혁이 진행되면서 대학교마다 학원제(단과대학제) 운영 방식이 도입되었다. 명실상부한 외국어 단과대학이라면 적어도 3개 이상의 외국어학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많은 대학들에는 영어와 일본어 혹은 영어와 러시아어와 같이 두 학과뿐이었다. 외국어 단과대학 건설을 위해서는 새로운 외국어학과 교

사 영입이 큰 고민이었다.

넷째, 한국어학과 신설과 운영에서 고급인재 영입이 쉬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변대학교와 중앙민족대학교에서 일찍부터 모국어로서의 한국 언어문학 전공 대학 원생을 모집함으로써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조선족 석사, 박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한국어학과 신설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학과 운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경대학, 복단대학, 길림대학, 상해외국어대학, 낙양외국어대학 등 대학교들에서도 외국어로서의 한국 언어문학 전공 박사를 양성하였다. 그와 동시에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귀국 유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어 고급인재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 2. 한국어교육의 과제

### 2.1 외국어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어교육 목표의 변화

“一帶一路(One Belt One Road)”倡议(제안)에 따른 외국어교육의 환경 변화는 한국어교육의 인재양성 목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재래식의 [비통용어+ 통용어(영어)]형 단순 이중언어 외국어교육으로부터 다중언어(多語種) 외국어교육으로 인재양성이 다원화되고 특성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즉 지역어와 지역사회에 정통한 [多語種 + ]형 인재양성기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한국어교육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정통하고 영어는 물론이고 제3의 외국어 기초가 탄탄한 多語種의 ① 언어·문학·문화 연구형 인재, ② 국제관계 전략형 인재, ③ 경제사회 실용형 인재 양정으로 한국어교육의 다원화와 특성화를 실현해야 한다.

한국어교육의 다원화와 특성화는 결국 대학의 특성과 학생 수준에 따른 차별화 교육, 맞춤형 교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 인재양성 목표를 재정비하고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시대 발전 요구에 따라 많이 수정 보완해야 한다. 현재까지 교과목 설정이 한국 언어문학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인문사회과학 지식 전수를 위한 교과목 설정에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언어문학전공, 한중번역전공, 한국인문사회과학전공으로 3-4학년에서 단계적으로 더 세분화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한국어와 한국사회에 정통한 “多語種 + ”형 전문인재를 제한된 4년간의 학부과정에서 양성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우려이면서 최대 관심사이다. 그러므로 다원화되고 특성화된 인재양성은 학부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석사과정, 박사과정으로 이어지도록 인재양성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 2.2 외국어교육 이념 변화에 따른 한국어교육 방법의 갱신

외국어교육의 환경 변화가 한국어교육을 다원화와 특성화 방향으로 방향타를 조종하고 있다면 인공지능 시대, 빅데이터(Big Data, 大數據) 시대에 따른 외국어교육 이념 변화는 한국어교육 방법의 갱신을 촉구하고 있다.

오늘날 교육 이념으로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이 인공지능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 발전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와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외국어 교수 방식과 학습 방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교사와 학생의 인식이 바뀌면서 외국어교육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수 방법과 평가 방법의 갱신 그리고 학습 자료(MOOC 등)의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다변화 시대의 도전에 직면하여 한국어교육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다시 구축하지 않을 수 없다.

## 2.3 비통용어로부터 통용어로의 부상

일대일로 제안은 통용어와 비통용어를 포함한 외국어교육 발전에 대한 절호의 기회이고 새로운 도전이다.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70여 년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다른 비통용어교육에 비하여 교육 여건이 충족하고 교사진 구성이 보다 합리화되어 있다. 한국어는 영어를 제외한 여타 통용어들과 같은 레벨이지만 여전히 비통용어로 취급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한국어는 정부 차원의 지지를 얻어 마땅히 비통용어로부터 통용어로 승격되어야 한다.

신시대 외국어교육의 새로운 환경에서 중국에서의 한국어학과는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그리고 독일어, 일본어 등 통용어종학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자기 발전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 2.4 졸업생 취직과 학생모집 및 학과 존폐 위기 관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과잉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양적 성장보다 질적 담보를 보장해야 한다는 뿌리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졸업생 취직률로 학과를 평가하고 학과의 인기가 매겨지는 현재의 대학평가기제에서는 취직 문제를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 중국에서 한국어학과는 현재까지 취직률이 비교적 높은 학과로 평가되지만 너무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높은 취직률을 보고 개설된

일반대학이나 전과대학의 한국어학과가 문을 닫았거나 학생모집 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 학부 졸업생 취직뿐 아니라 한국언어문학전공 박사학위 졸업생의 취직도 큰 문제이다. 공급이 수요를 넘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대학은 졸업생 취직률 뿐 아니라 학과 지원율에 따라 학과의 인기를 매기고 있으며 또 그로써 학과를 매년 평가하고 있다. 제1지원으로 입학한 신입생이 몇 퍼센트이나에 따라 제1류 인기 학과, 제2류 일반 학과, 제3류 보류 학과 등으로 구분되면서 퍼센트가 낮은 학과는 존재의 갈림길에 놓여 있게 된다. 많은 대학의 한국어학과들은 몇 년 전의 인기 학과로부터 보류 학과로 전락되고 있다. 학과의 문을 닫을 준비를 하라는 옐로카드를 받은 셈이다.

중국 대학들에서는 또 학부모집제(大類招生制)를 도입하고 있다. 학생들이 입학 후 1년 만에 또 한 번 자율적으로 전공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어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1년 만에 다른 학과로 옮겨 가는 전과(轉科) 현상이 발생하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일부 대학들에서는 학생모집을 매년으로부터 격년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대학 신입생 원천이 점점 줄어들면서 대학마다 지원 확보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외국어학과의 경우, 신입생 지원율은 졸업생 취직률에도 비례하지만 특히 두 나라 관계 정상화와 크게 관계된다. 양국 관계의 정치, 외교 정상화와 경제, 문화 교류 활성화가 한국어학과가 인기 학과로 남느냐 아니면 3류 학과로 전락하느냐 하는 데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은 역사가 이미 증명해 주고 있다.

신시대 외국어교육의 새로운 환경에서 개혁의 길목에 선 한국어학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시대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2.5 교수의 전공분야 및 학위수준 문제

한국어교육의 다원화와 특성화를 실현하려면 교수진의 전공분야 비례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학위수준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 한국어학과 교수진 전공분야를 살펴보면, 한국 언어학과 문학 전공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인문, 정치, 경제 분야 전공자가 극히 적다. 한국의 인문사회지식 전공자 교수 부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어학과 교수진의 전공분야 비례공식으로 “언어3+ 문학2+ 인문사회1”을 구상해 볼 수 있다.

한국어학과 교수진 학위 수준은 다른 어종의 학과에 비해 크게 높아 박사학위 소지자가 100% 수준인 학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중부, 서부 지역의 한국어학과들 중에는 석사 수준의 교사 비중이 높은 학과들이 적지 않아 이런 지역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

### 3. 한국어교육의 내일

일대일로 제안으로 인한 외국어교육 환경 변화는 한국어교육의 방향성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 인공지능 시대와 빅데이터 시대로 인한 외국어교육 이념 변화는 한국어교육의 방법론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어인재 양성이 다원화와 특성화의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 언어 문학 중심의 한국어교육이 한국학 중심의 한국어교육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학과 명칭도 한국어학과 혹은 한국언어문학학과로부터 한국학학과로 바뀔 소지가 많아지면서 학부과정에서의 한국 언어 문학 교육이 현재보다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어교육이 방법론적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접목됨으로써 한국어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다방면의 협력 강화가 요청된다. 대학교육이 교실 안의 교사 한 사람의 고군분투가 아니다. 대학 자체만의 교육도 아니다. 교사집단(教師團隊)의 협력, 산학협력, 국가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향상으로 전환하는 효율적 방안이 모색될 것이며 조선의 경제 진흥과 남과 북의 관계 정상화에 힘입어 또 한 차례의 도약이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

#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재와 미래

진 경지(대만한국연구학회 이사장)

1997년에 한국은 IMF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 각종 개혁을 통해 보다 튼튼한 경제 체제를 다졌다. 한류 또한 경제적인 상승세를 타고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대만에서의 한국어 학습열도 탄력을 받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 외에도 고등학교, 평생교육원, 사설 학원 등 각종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강의를 우후죽순으로 개설하기 시작했고 한국어 교육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과 한국의 민간적 교류가 최고조가 된 이 시점에서 대만의 한국어 교육 역사를 회고하여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미래를 전망할 때가 되었다.<sup>1</sup>

## 1. 한국어 교육의 역사 및 위상

1956년에는 대만 정부가 한국어 및 한국학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초로 국립 정치대학교(이하 정치대로 줄임)에서 동방어문학과 한국어문 전공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정치대는 전문적 인재 수요의 증가와 학과 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2000년에는 한국어문학과로 승격되었으며, 2012년에는 대학원 석사과정도 개설되었다. 그렇게 지금까지 약 63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기타 교육 기관과 달리 대학에서의 한국어 전공 수량은 교육부 총량제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정치대 외에 중국문화대학교(이하 문화대로 줄임), 국립가오슝대학교(이하 가오슝대로 줄임)에만 있다. 이상 세 학교의 설립 연대와 재학생 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

<sup>1</sup> 交通部觀光局觀光統計資料庫([tps://stat.taiwan.net.tw/](https://stat.taiwan.net.tw/))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대만, 한국 양국 간 서로의 방문자 연인원 수는 각각 1,019,441명, 1,086,516명으로 모두 백만 명을 돌파했다. 이 숫자는 역사상 최고치에 달성했으며 이로써 기록을 다시 갱신했다.

표1. 2018학년대 대만 대학의 한국어문학과 대조표

학과 명	학부		대학원		합계
	설립 연대	재학생 수	설립 연대	재학생 수	
정치대 한국어문학과	1956 년	148	2012 년	23	171
문화대 한국어문학과	1963 년	290	2000 년	39	329
가오슝대 동아시아어문학과 한국어 전공	2008 년	207 <sup>2</sup>	2018 년	2	209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대는 한국어 교육의 역사가 가장 깊고 부전공 학생 수를 포함하면 대만 대학에서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총량제의 영향으로 사립대에 비해 전공 학생 수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대만 남부지방에서 늦게 설립된 가오슝대도 같은 이유로 1년에 불과 9명의 전공 학생만 선발한다. 한국어 인재의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에 한국어 전공자 졸업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결과 타 학과 졸업생에 비해 취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문학과 입학 성적이 갈수록 높아지고 학과 전입생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20년 전과의 한국어 학습 상황과 비교하면 정반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2. 한국어 학습자 현황 및 분석

대만에서의 한국어 학습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서 수강생 수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학과 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 상황을 조사하였다. 최근 5년 간 대학에서의 한국어 수강생 수, 강의 개설 수, 그리고 강의 개설 학교 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sup>3</sup>

표2. 최근 5년 간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상황표

학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강생 수	13,784	15,275	17,034	18,734	19,893
강의 수	368	393	403	440	470
학교 수	36	39	41	43	48

<sup>2</sup> 가오슝대 동아시아어문학과는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세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sup>3</sup> 大專院校課程資源網(<http://ucourse-tvc.yuntech.edu.tw/webu/index.aspx>)

표2에서 보여주듯이 최근 5년 사이에 한국어 강의 개설 수량은 27.7%가 증가하고 수강생 수 또한 44.3%가 늘었다. 2018년 강의 개설 학교 수는 대만 전체 161개 대학교 중에서 거의 1/3 가까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와 수익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자격에 맞는 전문 한국어 교사를 초빙하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강의를 추가적으로 개설하는 것보다 한 교실에 수용할 수 있는 수강생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러한 방식은 대학에서의 한국어 학습 효과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절대적 수량으로 보면 한국어 수강생 수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지만 상승의 폭은 연간 10.82%에서 점차 6.19%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추세가 계속 된다면 몇 년 뒤 대만의 한국어 교육은 포화 상태에 이르리라 예상한다. 다른 한 편으로는 제2외국어로서의 대만 고등학교 한국어 교육도 대학처럼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강의 수강생 수, 강의 개설 학교 수 및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각 어종 간 한국어가 차지하는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sup>4</sup>

표3. 최근 5년 간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학습 상황표

학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강생 수	6,303	8,274	10,140	10,339	12,341
학교 수	241	291	355	366	403
수강생 비율	5.94%	7.2%	7.3%	9.55%	10.86%

2002년에 대만 교육부는 제2외국어 교육 추진 방안을 내세웠으며 2005년에 대만 고등학교에서 최초로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다.<sup>5</sup> 초기 수강생은 불과 39명이었으나 13년 사이에 316배 고속 성장하였다.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수강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어종 간 차지하는 비율도 스페인어를 제치고 약 10%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위인 프랑스어와는 단지 259명 차이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의 성장 속도로 볼 때 곧 고등학교에서의 3대 제2외국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sup>4</sup> 高級中學校第二外語教育推動計畫(<http://www.2ndflcenter.tw/web/class/class.jsp>)

<sup>5</sup> 陳慶智(2017), 「臺灣高中第二外語教育的實施現況與課題－以韓語教育為中心」, 『高雄應用科技大學人文與社會科學學刊』3卷2期, 國立高雄應用科技大學, pp. 3-4.



### 3. 한국어 교육 관련 학회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950년대 후반부터 일찍이 시작되었지만 관련 학회의 설립은 1980년대가 되어서야 출범하였다. 한국어 교육 관련 학회의 설립 연대와 설립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한국어 교육 관련 학회 대조표

학회명	설립 연대	설립 목적
중화민국(대만) 한국연구학회	1980.03	한국 언어,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영역 및 국내외 기관과의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문교육학회	2018.01	한국어문교육 및 한국어 교사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중화민국(대만)한국연구학회(이하 한국연구학회로 줄임)는 1980년에 창립되었으며 대만에서 역사가 가장 깊으며 회원수 또한 가장 많으며 회원 소속 또한 다양하다. 한국연구학회는 한국학이란 큰 틀 아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다방면으로 학술 연구 및 활동을 해 왔지만 한국어 교육 분야는 2000년이 된 후에야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어 교육을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2018년에 한국어문교육학회가 새로 창립되었다. 기초 학문 연구와 달리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학술적 활동을 하는 한국어문교육학회는 회원이 한국어 교육 종사자만 한정되어 구성원도 비교적 단순하다. 두 학회는 모두 정기적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간하지만 한국어문교육학회는 따로 한국어 교육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4.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전망

2018년 대만 교육부 통계처의 예측에 따르면 저출산 여파로 향후 대만 대학 신입생의 숫자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이며, 2028년에는 신입생 숫자가 최저치에 달할 것이라 예상했다.<sup>6</sup> 3년 뒤인 2022년에는 대만 대학 신입생 숫자는 현재보다 1/4 정도 대폭 줄 것이다. ‘저출산 쓰나미’라는 용어까지 생길 정도로 대만 교육에 큰 영향을 미

<sup>6</sup> 陳慶智(2019), 「대만에서의 대학 한국어 교육의 곤경 및 선택 -국립정치대학교를 중심으로-」, 『2019년 아시아 한국어문화교육연구회 및 싱가포르국립대학교 한국어 프로그램 10주년 기념 세미나』 논문집, 아시아 한국어문화교육연구회 · 싱가포르국립대학교, p. 59.

치고 있다. 특히 일부 대만 사립대는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대학에서 한국어 수강생의 성장 속도도 저출산 때문에 상쇄되어 대폭의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강의 커리큘럼의 재편성, 강의 내용의 질적인 향상, 그리고 교육 제도의 개혁 등의 방법을 통해 학습 요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정치대는 학문 간 융합적 인재를 배양하기 위해 2020학년도 대학원 복수전공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어문학과 교사를 충원할 때도 전산, 과학 전공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 일본은 물론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육도 많은 곤경을 겪고 있다.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국경을 넘어 기관 간, 학회 간의 협력을 통해서 같이 점검하고 추진한다면 장기적인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 몽골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의 현재와 미래

최 기호(국제올란바타르대학교 총장)

## 1. 머리말

칭기스칸은 몽골 초원 다달شم 작은 마을에서 불우하게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역경을 헤쳐 나가서 13세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대몽골제국을 건설하였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지는 “지난 1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위대한 인물로 칭기스칸을 선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칭기스칸은 재능과 지략이 출중하고, 명성을 세계에 펼쳤다. 개인의 능력으로서 그와 비교될 만한 인물이 없었다.”고 1995년에 보도했다. 그래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칭기스칸의 전략을 알면 모든 전략을 아는 것이다.”라고 칭기스칸의 전략과 통솔력을 극찬했다. 칭기스칸은 “나 한 사람의 꿈은 그저 꿈이지만, 만인의 꿈은 꼭 이뤄진다.”는 공동 비전(vision)을 가지고 꿈을 실현시켰다.

1990년 3월 26일 한국과 몽골은 국교를 새로 수립하였으므로 내년(2020)에는 수교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이에 몽골과 한국이 수교한 역사를 살펴보고 몽골에서 한국어 교육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2. 몽골에서 한국어 교육

### 2.1 세종대왕의 꿈과 한글 창제

세계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글자는 한글뿐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대왕은 1443년에 경복궁에서 훈민정음을 음양오행의 철학 원리로 음성기관을 본떠서 오직 어리석은 백성을 위하여 친히 창제하였다. 세종대왕은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성군이시며, 겨레의 큰 스승이시다. 미국의 세계적인 과학자 제레드 다이어먼드 박사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우수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하였다. 레드야드 교수도 ‘세종대왕은 한국인의 자랑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자랑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세종대왕은 세계의 석학들도 존경하는 위인이시다. 세종대왕의 꿈은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여 한글

로 피어났고 뛰어난 업적으로 나라의 기틀을 세웠다.

## 2.2 몽골에서 한국어 교육의 어제와 오늘

1990년 3월 26일 한국과 몽골이 정식 수교한 이후 몽골 동양학연구소(하이산 다이소장)에 한국어 강좌가 최초로 개설되었다. 그리고 1991년에 몽골국립대학교에 한국어과가 처음으로 개설되어 대학에서 정식 학과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었다. 학과장은 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어서 몽골외국어대학교(1992)와 필자가 총장으로 재직했던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1993)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었다. 그 후 시립울란바타르대학교(1994), 어르헝대학교(1998), 국립사범대학교(2000), 몽골과학기술대학교(2002), 다르항대학교(2004) 등이 차례로 한국어학과를 개설하였다. 또 MIU대학과 후레정보통신대학에서 한국어학과를 개설하였다. 교양과목으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대학은 수없이 많다.

2015년 현재 몽골의 31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어과나 한국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20여 개나 된다. 정규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약 4,000명에 이른다. 몽골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25개 학교이며, 모두 2,600여 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또 기독교 교회와 한국의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

## 2.3 울란바타르대학교에 제1호 세종학당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고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이다. 2014년 현재 전 세계에는 55개국에 130여개의 세종학당이 개설되어 있다. 그 중에서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세종학당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제1호 세종학당이다. 2007년 3월 19일 당시 국립국어원 이 상규 원장은 필자의 소개로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에 제1호 세종학당을 열었다. 우선 몽골 공무원을 대상으로 4개 학급 80명을 모집하여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그 후 많은 몽골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여 한류 열풍에 일조하고 있다. 이 상규 원장은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은 문화 상호주의적 원칙에서 쌍방향 문화 교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세종학당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몽골의 친선과 사랑이 이뤄지기를 강조하였다.

## 2.4 울란바타르대학교의 ‘한글 큰잔치’

15세기의 세종대왕의 꿈이 몽골에서도 ‘한글 큰잔치’를 통하여 펼쳐지고 있다. 몽골 인들은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유학을 가고, 한국에서 노동을 하여 ‘코리아드림’을 꿈 꾸고 또 실현하고 있다. 몽골에서 한국어 경연대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몽골 대학생 말하기 대회’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올림피아드’ 등이 있다. 그러나 역사나 규모가 가장 큰 한국어 경연대회는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의 ‘한글 큰잔치’이다. 이 ‘한글 큰잔치’는 울란바타르시와 공동 주최하는데, 2004년에 제1회를 시작 하였으니 올해는 16돌이 된다.

이 대회는 몽골 사람들의 한국어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서 한국과 몽골의 친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대회는 몽골의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하여 대학생, 일반인 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대회이다. 그리하여 몽골에서 한국어 교육 풍토를 조성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나아가 한류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경연 종목으로 ‘한국 글짓기 대회’를 비롯하여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한국어 노래 대회’가 중심인데, 여기에 붓글씨 대회, 컴퓨터 빨리 치기 대회 등이 어우러지고 한국음식과 한국 전통 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벌어진다. 특히 한국어 노래 대회가 벌어질 때는 3000 명이 들어가는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체육관이 열기로 가득 차서 한바탕 한국문화 큰 잔치가 벌어진다.

이 대회에서 최고상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으며, 부상으로 6개월간의 한국 연수 특전이 주어진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장상, 외솔회장상과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총장상 등에 상장과 푸짐한 부상이 주어진다. 그리고 몽골에서 한국어 교육에 10년 이상 헌신한 교수 가운데 1년에 한 명씩 선정하여 ‘외솔 최 현배 한국어 교육자 상’을 수여하는데, 외솔회 최 은미 이사가 후원하여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 상을 받은 사람은 권 성훈 몽골국립대 교수를 비롯하여 최 선수(몽골인문대), 수미야빠타르(국제울란바타르대), 이 안나(국제울란바타르대), 하과(몽골국립대), 송 의민(몽골국립사범대), 강 선화(국제울란바타르대), 사임빌릭(국립대) 교수 등이다. 필자는 이 대회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후원회 이사이며, 석좌교수로서 2004년 10월에 상명대학교 이준방 이사장의 큰 후원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그 후 국립국어원의 이상규 원장과 최용기 부장, 외솔회 성낙수 회장과 최은미 이사, 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 서원남 원장과 이영숙 교수, 한국문화사 김진수 사장 등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여 이 대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었음을 밝히며,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 말씀을 드린다.

## 2.5 몽골에서 부는 한류 열풍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세계적인 타원틀고이 광산을 비롯하여 구리, 금, 석탄, 석유 등 지하자원이 개발되고 있다. 또 말, 소, 양, 염소, 낙타 등을 비롯한 가축들의 유가공, 육가공, 가죽가공 등 축산 자원이 개발을 기다리고 있고, 광활한 초원의 밀, 감자, 유채 등의 농산 자원이 개발되고 있다. 주한 몽골인들이 현재 45,000여 명이 있는데 대부분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몽골에서 한국어 교육의 열기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케이팝(K-POP) 등 한류 열풍과 상승 작용을 하여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원래 ‘한류(寒流)’는 한국문화가 중국에 매섭게 파고든다는 뜻으로, 중국 언론이 만든 말이다. 그래서 우리 ‘한류(韓流)’는 한국의 대중가요나 영화, 드라마 등이 1990년대부터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등에서 인기를 끄는 현상이다.

한류는 조용필이나 최민수, 배용준, 이영애, 보아, 싸이, 방탄소년단 등 가수와 배우들의 뛰어난 예술성에서 시작되기도 하였지만, 그 뿌리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국적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영애 주인공의 드라마 「대장금」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30억 인구가 시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난징시에서는 축구 경기를 보려는 남편과 「대장금」을 보려는 아내가 격렬하게 다투다 아내가 강물에 투신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몽골에서도 「대장금」은 80% 이상의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다. 내가 몽골을 방문했을 때 유명한 민속학자 체렌 소드놈 교수는 자기가 요즘 「대장금」을 보는 재미로 산다고 했다. 그는 ‘중종 때 의녀 장금이’라는 짧은 역사 기록으로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게 드라마를 만들었느냐며 감탄하였고, 한국 음식은 발효 음식이 많고, 국 종류가 가장 발달한 과학적인 음식이라고 찬사를 하였다.

## 3. 맺음말

말은 문화의 알맹이고, 나라와 겨레의 본 바탕이다. 한헌샘 주 시경 선생은 ‘겨레란 언어 공동체이며, 겨레의 힘은 곧 말을 바탕으로 하여 길러진다.’고 가르쳤다. 선각자 박 은식 선생도 ‘일본말을 가르치면 일본 사람이 되고 중국말을 가르치면 중국 사람이 되므로 우리는 우리말을 꼭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 인류의 문화는 크게 네 차례의 큰 변혁이 있었는데 그 변혁의 요소로서 말과 글과 인쇄술과 뉴미디어를 들고 있다. 사람이 말을 함으로써 수렵사회를 이루었고, 글자를 만들어서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여 농경사회를 형성했다. 또 활자를 만들고 인쇄술이 발달하여 산업사회를 만들었고,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뉴미디어가 오늘의 디지털 시대, 정보통신(ICT) 시대로 큰 변혁을 이끌었다.

우리는 일찍이 한국말이 있었고, 고려 우왕 3년(1377)에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개발해 “직지심체요절”을 간행하였다. 세종대왕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음소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한글은 뉴미디어 컴퓨터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정보통신 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문자 메시지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까닭도 전적으로 한글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한글과 한국어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도구요, 우리 겨레의 밝은 날을 밝히는 햇불이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세계에서 정보사회에 가장 알맞은 글자로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정보산업 사회를 선도하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한글이라는 우수한 글자 때문으로 보고 있다. 15세기 세종대왕의 꿈이 한글로 부활하여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다.

# 싱가포르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의 현재와 미래

지 서원(싱가포르국립대)

## 1. 싱가포르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의 현황

여러 한국 기관의 정책 보고서<sup>1</sup>에 따르면 아세안<sup>2</sup> 국가들의 한류의 영향은 현지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관심을 넘어서 한국과의 경제 교류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인구나 면적은 작지만 높은 경제 성장률과 정치적인 안정으로 아세안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역시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류가 싱가포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의 본격적인 한류의 시작은 2000년초라고 볼 수 있는데 (Lim, W.X 외, 2015)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관심은 싱가포르 대학에서 2007년부터 한국어 강좌가 선택 과목으로 본격적으로 개설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싱가포르 대학에서 한국어 과목이 개설된 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국어 교육의 현재를 분석하고 새로운 도약과 방향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넘어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사려 된다. 본고에서는 싱가포르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학교와 사설 기관에 대해 알아본 후 향후 한국어 발전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

## 2. 싱가포르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

한국국제교류재단 보고서(2018)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현지 주요 대학교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와 전문대 과정이 통합된 폴리 테크닉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어학이나 한국어학등의 전공은 없지만 싱가포르국립대학교 (NUS), 난양기술대학교(NTU), 싱가포르경영대학교 (SMU)에서 선택과목으로 한국어 강좌가 있고 싱가포르(Singapore), 니안(Ngee Ann),

<sup>1</sup> KOTRA(2009, 2010) 보고서

<sup>2</sup>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난양(Nanyang)폴리테크닉대에서도 선택과목 형태의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는 2018년 8월부터 선택과목이었던 한국어가 부전공 과목으로 채택되어, 싱가포르 국립대 학부생들은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 대학교과 폴리테크닉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동호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동호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이 친한(韓)인재와 한국의 전문가로 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 3. 일반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현황

일반인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 역시 다양한 기관에서 개설되었는데 예를 들면 한국국제학교 (KLC), 한국관광 공사, 주민센터(Community Center), 사설학원<sup>4</sup>등 인터넷<sup>5</sup>의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어 수업이 있는 사설 학원 수와 수강 인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기관이나 싱가포르 정부 기관에서도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다는 것을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정확한 조사가 선행된다면 추후 싱가포르 학습자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한국어 교사의 연수나 교류에 있어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대부분 대학 및 폴리테크닉 교육 기관에서는 한국 대학 기관에서 출판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설 학원에서는 주로 각 학원에서 만든 유인물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는 것을 각 사설 학원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에 싱가포르 현지 학생들을 위한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sup>3</sup> 1) NUS Korean Cultural Society 성격 대학교한국문화동아리 회원 수 약 220명(2018)

2) NTU Korean Cultural Society 성격 대학교한국문화동아리 회원 수 614명 팔로우

3) SMU Woorisayi 성격 대학교한국문화동아리 회원 수 66명(2018)

4) NP(Ngee Ann Polytechnic) Korean Cultural Club 성격 대학교한국문화동아리 회원 수 230명

5) NYP(Nanyang Polytechnic) KWave Club 성격 대학교한국문화동아리 회원 수 약 146명6 WAH Korea Club! 성격 한국관광공사 서포터즈 회원 수 약 13,500

<sup>4</sup> 주요 17개의 사설 학원들은 다음과 같다. 1) ezSAM Korean Language Centre 2) Daehan Korean Language Centre 3) Sejong Korean Language School 4) iSpeak Korean Language Centre 5) Ganada Korean Language Centre 6) ONLYOU Korean Language School 7) inlingua 8) Agape School of Education 9) Hankook Korean Language Academy 10) Seoul Korean Language Centre 11) Hanok Korean Class 12) Hangeul Korean Language School 13) Learn Korean Singapore 14) United Language Center 15) Jang Korean Culture Centre 16) Kimko Korean Language Tuition 17) Seoul Korean Language Centre

<sup>5</sup> <https://soyouwant2learn.com/korean/>참고

#### 4. 싱가포르 한국어 교육 및 학습자 관련한 연구 활동 현황

싱가포르 한국어 교육 및 학습자에 대한 학위 논문은<sup>6</sup> 특정 대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sup>7</sup> 여러 주제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또한 좀 더 다양한 주제와 분야에 대해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 소수의 연구자들이 있기에 아세안 연구들자 및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과의 공동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5.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위한 제언

1) 싱가포르에서의 교사 연수 및 재교육의 필요성- 현재까지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들의 교류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가칭 싱가포르 한국어 교사 협의회를 만들어 활발한 교류 및 교사 연수를 통해 교사 재교육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내 교사의 질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친한 인재 육성 및 한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략의 변화 필요성-매년 한국 정부에서는 6-7명 정도의 싱가포르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학업 과정을 마치고 싱가포르에 돌아와서 한국과 관련된 업무

---

<sup>6</sup> 주로 국회도서관에 등재되어 있는 싱가포르 한국어 교육 관련논문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싱가포르에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았다. 또한 검색어 기능을 활용해 '싱가포르 한국어 교육', '싱가포르에서 한국어 학습자', '싱가포르 한국어 교사' 검색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학위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1)한은희(2016). 싱가포르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 내용 연구, 경희사이버대학원 문화창조대학원

2)최선영(2010). 재외 한국학교 한국어 학습 부적응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3)박지선(2019). 요리를 활용한 한국어 교재 개발,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4)박한별(2018). 국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재동기 요인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5)정나래(2017). 한국어 학습 동기 및 탈동기 요인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문화창조대학원

6)연현(2013).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7)구하라(2019). 국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불안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8)나지영(2014). 다중언어 화자의 L1, L2가 L3로서의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sup>7</sup> 몰입교육을 통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상이문화간 이해,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한국어와 문화 학습, 모바일 한국어 러닝- 팟캐스팅, 팟캐스트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조사와 태도-두 언어의 비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목적, 외국어를 배우는 동기로서의 대중 문화-한류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한국어와 문화 학습

를 하거나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또한 한국어를 배우는 싱가포르 대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동기는 외적 동기보다는 대부분 내적 만족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8</sup>. 대학 졸업 후 진로 선택시 한국어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한국 기업이나 기관에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Chan, W.M., & Chi, S.W. (2017). In-country language immersion and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learners' intercultural compet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3(2), 1-36.
- Chan, W.M., & Chi, S.W. (2016). Language and culture learning through project work: Perceptions of university students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27(English edition), 133-173.
- Chi, S.W., & Chan, W.M. (2013). Mobile Korean language learning - podcasting as an educational medium. *Studies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2), 121-147.
- Chan, W.M., Chi, S.W., Chin, K.N., & Lin, C.Y. (2011). Students' perceptions of and attitudes towards podcast-based learning - A comparison of two language podcast projects. *Electronic Journal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8(Suppl. 1), 312-335.
- Chi, S.W., & Chan, W.M. (2011). Learning beyond the classroom: Language podcast as supplementary learning material. *Ubiquitous Learning*, 3(2), 21-40.
- Chan, W.M., & Chi, S.W. (2010). A study of the learning goals of university students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Electronic Journal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7(Suppl. 1), 125-140.
- Chan, W.M., & Chi, S.W. (2011). Popular media as a motivational factor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The example of the Korean Wave. In W.M. Chan, K.N. Chin, M. Nagami & T. Suthiwan (Eds.), *Media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pp. 151-188). Boston & Berlin: De Gruyter Mouton.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10)
- Chan, W.M., & Chi, S.W. (2010). Popular media as a motivational factor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The example of the Korean Wave. In W.M. Chan, K.N. Chin, M. Nagami & T. Suthiwan (Eds.), *Media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pp. 151-188). Singapore: Centre for Language Studies.
- Lim, W.X., Lim, T.W., Ping, X. (2015), *Korean Wave (Hallyu) in Singapore: Policy Implications*. Singapore: East Asian Institut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KOTRA(2009). *아세한 휩쓴 경제한류*, 서울: KOTRA 연구보고서
- KOTRA(2011). *문화 한류에서 경제 한류로의 도약을 위한 글로벌 한류 동향 및 활용 전략*, 서울: KOTRA 연구보고서
- 한국국제교류재단(2018). *2018 지구한류현황*, 서울: 외교부.
- Ryoo (2018). *Prompting Korean in Singapore- A viability Study of Korean as a Third Language*. 온나라 정책연구 보고서
- 싱가포르 한국어 교육 기관 리스트 <https://soyouwant2learn.com/korean/>

<sup>8</sup> Ryoo (2018) 온나라 정책연구 보고서

# 일본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의 현재와 미래

하세가와 유키코(규슈산업대학)

## 1. 들어가며

일본의 한국어 교육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우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일본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것은 18세기 초의 일로, 그 역사가 유난히 오래되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위치한 쓰시마(대마도)의 대 조선 외교 담당 보좌관이었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 芳洲)가 한국어 교육 시스템 구축에 힘을 썼고 교재 개발에도 큰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전반의 식민지 시기에는 행정, 상공업, 교육, 종교 등 다방면에서 일본인의 한국어 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이 시기 경성제국대학에서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등의 일본 학자들이 이룬 한국어학 분야의 수준 높은 연구는 그 후의 한국어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패전 이후 한참 동안은 일본의 한국어 교육이 거의 전적으로 한국인에 의한 민족 교육에 한정되었으나 70년대에는 일본인 중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80년대에는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어 붐이 일었으며 90년대에는 민간교류가 본격화되면서 일반 고등학교, 대학교, 민간단체 등에서도 학습 기회가 마련되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어 학습이 굉장한 붐이 되었지만 상기한 바와 같은 역사와 사회적인 배경을 전제로 그 현상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 2.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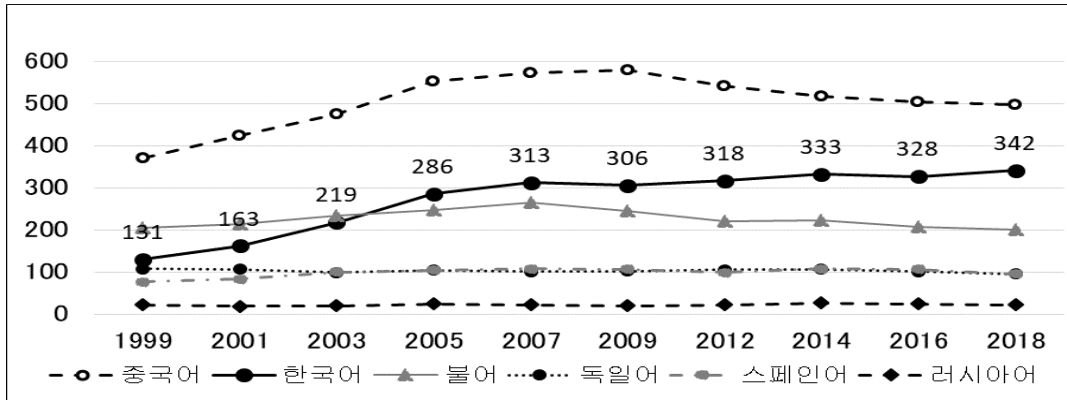
일본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크게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 대상 교실 등으로 나눌 수 있다.<sup>1</sup> 그림 1과 2는 영어 이외 외국어 수업이 개설된 고등

---

<sup>1</sup> 한국어 교육이라면 남한계 및 북한계 민족학교 교육을 빠트릴 수 없으나 여기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한하기로 한다. 또한 최근에는 영리 목적인 학원들도 많지만 원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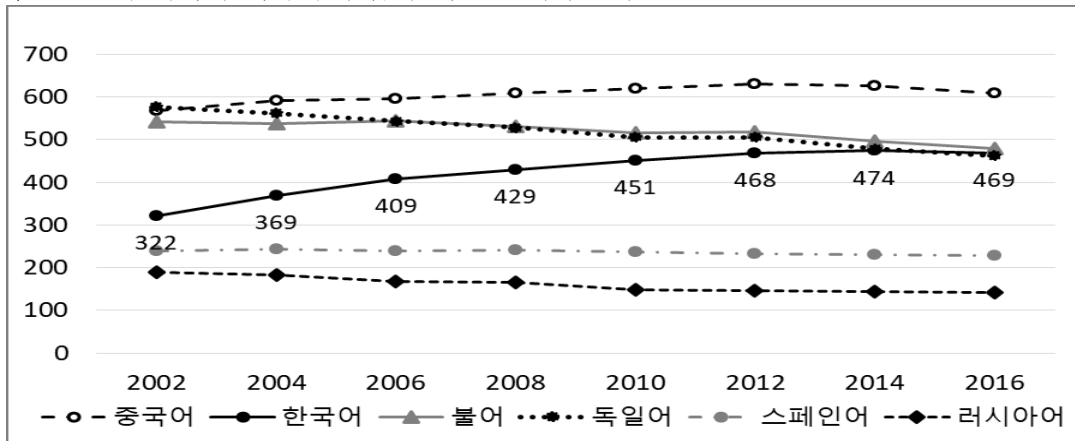
학교와 대학교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그동안 한국어 개설 학교 수가 다른 외국어에 비해 증가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영어 이외의 외국어 수업이 개설된 고등학교 수



일본 문부과학성(2018)에서 작성.

그림 2. 영어 이외의 외국어 수업이 개설된 대학교 수



일본 문부과학성(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에서 작성.

일본에서는 2004년에 1차 ‘한류’ 붐이 일어난 뒤 2009-2010년에는 ‘제2차 한류’가, 2016년 이후 ‘제3차 한류’가 뒤를 이었다고들 한다. 1차 붐 때는 팬층이 중고령 여성들이었던 것이 2차, 3차로 갈수록 팬층이 점점 저연령화되고 남자 팬들도 꽤 늘었다. 한편으로 1차 붐 때 그 과잉 현상에 반감을 드러낸 ‘혐한류’라는 움직임이 일게 되었고 2012년 이후 한일 간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 나빠

지자체나 민간 시민단체 등에서 계몽활동 차원에서 운영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틀어 ‘성인 대상 교실’이라 부르기로 한다.

졌다 했다. 하지만 10대 팬들은 외교 관계에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 듯 적어도 2019년 상반기까지는 고교와 대학 수강자 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2019년 하반기 현재의 한일 관계로 보아서는 그 영향은 두고 보아야 할 것이고 2020년도 수강자 수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걱정되기도 한다. 그래도 한국어 교육/학습이 양적으로 얼마 안되었던 2000년 이전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어 교육/학습에서 차지하는 한국어 교육/학습의 위상은 이제 확고하다고 할 수 있다.

### 3. 일본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전망

최근의 특기할 만한 현상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정식으로 수강하기 전에 이미 독학으로 한글을 깨치고 동영상이나 SNS를 통해 한국어를 많이 접한 상태인 수강생이 꽤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들이 이는 한국어는 대체로 한정적이거나 편협된 경우가 많아 기초부터 다져 주어야 한다. 한편으로 대학에서 처음으로 한국어에 접하는 학생들도 여전히 많은 가운데 대부분 대학에서 이같이 다양해진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가 과제일 것이다. 적어도 거의 모든 학생이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던 시절과는 분명히 다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고급 학습자의 양적 확대 또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독학으로 혹은 고등학교 수업에서 제대로 배워 온 학생들도 있고 한국어에 향시 접해 있거나 한국에 자주 드나들어서 한국어 실력이 느는 속도가 매우 빠른 학생들도 있다. 교환유학이나 방학 기간의 단기 연수를 갔다 오는 학생도 많아져 이들 중고급 학습자를 적절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성인 대상 교실 등에서는 초급반에 수강생이 모이지 않고 중고급반 수강생이 늘었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살아 남기 힘들다는 말도 있다. 중고급 학습자일수록 목표가 분명하고 초급 학습자들보다 까다로운 면이 있다 보니 그들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수강생들이 다른 교실로 빠져 나갈 수도 있다. 이에 민간학원 강사들이 모여 학습자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질 높은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한, 혹은 양성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벌이는 전국 조직도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특유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그림1을 보면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 수는 늘었다고 할 수 있으나 2018년도 전체 고등학교 수가 4907개교인 데 한국어 수업 개설 학교가 342개교라면 이는 7.2%에 불과하다. 더구나 전체 고등학교 재적자 수가 3,280,247명인 데 대해 한국어 이수자 수는 11,265명으로 0.34%에 불과하다. 한국의 중등교육 과정 일본어 학습자가 451,893명이고 2017년 중고등학교 재적자 수가 3,051,033명이니 이에 14.8%에 달

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된다.

이는 일본 중등교육 단계에 제2외국어라는 교과목이 없다는 데서 비롯된 일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수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어 교직과정은 현재 전국에 6개교<sup>2</sup>가 있는데 어렵게 교직과정을 마쳤다 해도 한국어 교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 이수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그 결과 고등학교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중 교원자격증이 없어 기한부 특별면허로 가르치는 시간강사가 많아지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은퇴라도 하면 여러 학교의 한국어 수업들이 폐강될 수 있다는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고등학생은 많은데 교원이 없어 수업이 개강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대학에서 중등교육 교원을 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학에서 교육학적 혹은 언어습득론적인 한국어 교육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초래한다. 물론 자립 학습을 재촉하기 위한 연구,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연구 등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 자체는 훌륭한 일이지만, 교육 전문가인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학적 접근은 미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일본의 한국어 교육 연구가 학습자의 양과 질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쉽게 생각되며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 본다.

## 참고문헌

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연보 2017”

国際交流基金ウェブサイトより

・国別の日本語教育情報>韓国(2017年度)>日本語教育の実施状況

国際文化フォーラム (2003) 「TJF の事業：天理大学の朝鮮語教員免許取得講座」 『国際文化フォーラム通信』 57, 10-11.

野間秀樹, 中島仁(2007) 「日本における韓国語教育の歴史」 『韓国語教育論講座』 第1巻, 69-93.

文部科学省高等教育局大学振興課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平成15/17/19/21/23/25/27/令和元年度の大学における教育内容等の改革状況について」

文部科学省総合教育政策局教育改革・国際課 (2019) 「平成29年度 高等学校等における国際交流等の状況について」

文部科学省ウェブサイトより

・平成31年4月1日現在の教員免許状を取得できる大学>中学校教諭・高等学校教諭

・文部科学統計要覧(平成30年版)>学校教育総括 .

---

<sup>2</sup>고등학교 중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대학은 2019년 현재 38개교이며, 프랑스어가 31개교, 독일어가 27개교인데 한국어 6개교라는 수 자체가 형편없이 부족한 수이다.

---

韓国語教育研究（第10号）

2020年9月15日 発行

---

発行者 文 慶喆

発行所 日本韓国語教育学会

〒577-8052 大阪府東大阪市小若江3-4-1

近畿大学 国際学部 酒匂康裕 研究室気付

編集者 『韓国語教育研究』編集委員会

金世徳、柳朱燕

印刷所 株式会社 仙台共同印刷

---